



Martens Radler

마튼즈 라들러

시원한 맥주와 산뜻한 레모네이드의 찰떡궁합



Type	RTD
Country / Brand	벨기에 / 마튼즈
Capacity	500ml
Packaging	캔
Alcohol	2.5%

Information

"라들러"는 독일 남부지방에서 즐겨 마시는 맥주와 레모네이드를 혼합한 음료이다. 독일어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(Fahrrad, 줄여서 Rad)이라는 뜻으로, 알코올 도수가 낮고 청량감이 좋아 음용 후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. 마튼즈 라들러는 정제수, 보리맥아, 홉을 발효 및 숙성해 만든 맥주 완제품과 자연산 레몬 향을 넣은 레모네이드 완제품을 일정 비율(약 5:5)로 혼합해 완제품으로 즐길 수 있다. 기존에는 맥주 전문점이나 호텔 바 등을 중심으로 칵테일로 판매되었으며 완제품으로 국내에 출시한 것은 마튼즈 라들러가 최초이다. 보리맥아와 홉의 풍부한 향과 함께 신선한 레몬의 향긋함이 더해져 적당한 탄산과 함께 청량감 있게 마실 수 있으며, 알코올 도수가 낮아 술을 못하는 여성이나 야외활동 시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.